

---

**2022년 제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문화콘텐츠과**

## □ 심의개요

- 일 시 : 2022. 11. 29(화), 14:0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9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13개소 20작품

## □ 심의결과

- 20작품 중 가결 18작품(원안가결 15/조건부 1/권고 2), 부결 2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남동구 논현동 764-1,2외 1필지	조각	Natural-생성	○		
2	2	중구 운남동 1681-2	조각	The circulation of the wind	○		
3	3	서구 원당동 검 단지구 C12-4-1블럭	조각	피노키오의 항해	○		권고
	4		조각	진실된 내가 거짓된 내게	○		
4	5	송도동 205번 지 외 1필지	조각	생성소멸	○		
5	6	송도동 94-3	조각	볼라피스/타임머신(Volafice Time Machine)	○		권고
	7		미디어	볼라피스의 시간여행	○		
6	8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	조각	For the Clear World	○		
7	9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 원	조각	설레임-마음을 그리다.	○		
	10		조각	시간.공간-여행	○		
8	11	미추홀구 용현 동 624-48	조각	생명+중첩	○		
9	12	송도동 396-11	조각	The cloud	○		조건부
	13		조각	Connected	○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0	14	청라동 4-19	조각	홀로서기(stand alone)	○		
	15		조각	시인들의 이야기 (Tales of poets)	○		
11	16	서구 불로동 불 로지구 9B-1,2L	조각	Garden Totem A		○	
	17		조각	Garden Totem B		○	
12	18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1-1BL	조각	서쪽에서 부는 바람	○		
	19		조각	높이 높이 날아라	○		
13	20	연수구 옥련동 118-44번지 일원	조각	꿈꾸는 정원	○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1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위원회”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 위원 중 한 분은 약 15분정도 늦으신다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13개소 20작품이며, 분야별로는 조각 19작품, 미디어 1작품, 이중 신규는 10작품, 재심의는 10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서는 채점을 하지 않게 되며, 작품에 대해 창작자 정보는 경력과 작품 이력 외에는 비공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작품들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를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 은 심의신청인과 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 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중 한분이 확인하시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니 추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점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실 밖에는 작품설명을 위해 작품관계자 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질의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

겠습니다.

##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20건입니다. 안건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8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11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채점, 집계 결과 발표, 심의 의결서 작성, 폐회 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 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1차 회의에서는 20개 작품을 심의합니다. 순서는 신규 안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재심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작품에 대한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 1. 남동구 논현동 761-1번지, 2번지 외 1필지

### 1) <Natural-생성>

위원장        첫 번째 작품 <내츄럴-생성>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 작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조각전공 선생님들이라서, 예. 조각가 선생님들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예, ○○○입니다.

○○○        예.

○○○        저 작품은...

사회자        그 앞쪽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좀 눌러주시면...

○○○        여기요? 예, ○○○입니다. 저기 그 요즘 이렇게 보통 스테인 작품들이 좀 많은데 저 돌과 이렇게 좀 연관성을 지으니까 조금 더 자연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거부감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예,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이질적인 오브제를 조화시키려는 그 시도나 노력은 좋게 보는데 좀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창성이나 참신성, 좀 더 그런 어떤 예술적 가치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독창성이거나 창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마치시면 그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 채 점 중 )

## 2. 중구 운남동 1681-2번지

### 2) <The circulation of the wind>

위원장        다음 2번 작품 <The circulation of the wind> 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2번 작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예, ○○○ 선생님?

○○○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원과 구와 이 라인의 어떤 그런 연결이 되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뭐죠? 포토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저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        예, 그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오브제의 특성을 연결해서 역동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잔디, 땅과 이렇게 보색 대비해서 더욱더 좀 더 적절이 돋보이는, 예. 개인적으로는 작품성이 비교적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됩니다.

○○○        네, 작품이라는 건 지극히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평가하기에. 뭐 이렇게 자연과 ○○하는.. 충분히 나오는데 예술 작품은 아쉽게도 그런 걸로 책정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고서 느낀 게 꼭... 너무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요, 형태가? 물론 이제 작가의 시그니처로 볼 수 있지만 뭐 이렇게 ○○○ 나온 모 선생님의 작품이랑... 얘기를 해도 되나요?

○○○        네, 말씀하십시오. 예.

○○○        ○○○ 작품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        누구요?

- ○○○ 씨.
- 음
- ○○○요?
- 네, 네.
- ○○○ 씨는 좀 다르지 않나요? 좀 더...
- 이제 끝은 다르죠. 아니, 형태가 너무 비슷해요, 형태가. 왜냐하면 ○○○ 씨, 작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인천에서도 보면, ○○○에 가면 있거든요, 그렇게.
- 그럴 수도 있는데...
- 예, 물론 이제 ○○○ 씨의 작품은 처음 시작할 때, 나올 때도 다르죠. 끝에 뭐 ○○○라든지 그 밑에, 그런 게 조금 다른데 나름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우리가 작품을 많이 보면. 그래서 제가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평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패러디나 이렇게 오마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술작품에서 이렇게 예습하면서 소화가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님. 그럼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해당 작가의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이나 이걸 통해서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금 말하자면 아까 방금 거론된 ○○○ 작가 작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예, 예. 그래야지 좀 판단이 들든
- 글썄요, 근데...
- 아니요, 그거는 굳이 판단을 안 하셔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꼭 같은 작품이라고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개개인 작가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그럼 ○○○ 선생님 말씀대로 오늘날의 미술이 오마주나 또는 뭐 전유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독창적인 작업이나 라는 얘기는 항상 있죠, 네.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보가 활발하게 교환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데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모르게 남의 것을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표절 시비가 따르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선생님들 다 이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시니까 현명한 판단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인천시청에 여쭙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까 그런 표절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사회자 지금 아까 채점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심사에 대해서, 그 채점표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이제 70점 이상이나, 미만이냐를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에 취합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면 찬성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여기서 어떤 그 ‘작품이 유사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채점표로 최종적인 활용을 합니다.

○○○ 그렇죠. 제가 ○○○ 선생님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표절 작품은 아니에요. 비슷한,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 예,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n분의 1 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데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표절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위원회에 대한 권위가 사실은 실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한 인천시에서도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떠한 장치가 마련돼야지, 조금 더 위원회 권위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어떤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여쭙보았습니다.

○○○ 네.

○○○ 제가 볼 때는 ○○○ 선생님 작품을 저도 몇 차례 봤고 예전에 심의도 했었어요. 근데 ○○○ 선생은 약간 피비우스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그런 피비우스적인 요소를 우리 오방설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색을 써서 라인으로 길게 같이 선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작업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작품은 어떤 파이프 하나하나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런 것들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걸 표절은 아니고 작가의 어떤 나름 개성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 봐도 그게 그거인 작품도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표절은 아니고 ‘이건 다른 작가의 어떤 나름 개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가 서울을 가든, 청주를 가든, 제주를 가든 다 똑같은 형식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지겹게 이렇게 그런 펼쳐져 있는 이런 도시 환경에서 이 건축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장식품이나 또는 조형물이나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것을 갖다가 불식하기 위한 것이 개념을 좀 바로잡자고 건축물 미술작품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예술이 있는가? 오죽하면 디저트 조각이라는 말이 나오고 명패 조각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서로들 영향 받고, 베끼고 그렇게 때문에 아파트... 온통 여기저기 다 비슷비슷한 것들, 본 것들 좀 나쁘게, 좀 흑독하게 하자면 영혼 없는 작업들이 마구 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심의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작가로서도 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판단이야 심의위원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결과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저기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선생님.

○○○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간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의 심의 이력 작품들을 보니까 지금 공간이 기존의 것과는 이 작가분이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트 공간으로 덩어리 쪽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선형으로 바뀌면서 이번에 출품을 하신 거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저게 굉장히 안전성이 있는 건지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조각하시는 분이 보기에 파이프를 저렇게 엮어서 선형으로 저렇게 올라갔을 때 안전성이 정말 확보가 되는 건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은 해요.

○○○ 네, 네.

○○○ 안전성 확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 용접 이렇게 한 점을 찍었을 때 보통 2.5톤을 견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충분히 안정성은 확보가 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천시에서는 그 4m, 예를 들어 4m, 5m 어느 정도 이상 높이의 작품은 구조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5m요?

사회자 네, 저희들은 저희가 5m 이상에 대해서 구조검토서를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 여기 개선할 점에 써주신 분 중에 아래쪽 반원 윗부분을 그냥 저 위쪽에 있는 그 구슬 모양처럼 투명하게 비칠 수 있게 처리하는 게 어떠한 견해를 주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 아니에요, 구?

○○○ 네, 네, 아래쪽에 있는 구에 줘...

○○○ 그것도 조건부로 해서 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 네, 저도 같이 위쪽에 같이 비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 잠깐, 잠깐, 그거는…
- 그 아래에 있는 걸 전체를 다 불을 그냥 밀러로 하자?
- 네, 네, 네.
- 아, 예, 예.
- 혹시… 네.
- 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더 좋은 거를 제안은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작가의 의도나 작가적인 어떤 그런 작품관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건다든지 그런 거는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 행위에 조금 더 부담이 되는 측면이어서요. 저는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아, 제가 볼 때는 밑에는 오히려 저는 사실 밑에가 좀 잘린 게 조금 그 구가, 구 자체가 잘린 게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위에 있는 거가 과연 필요한지 그런 좀… 일부러 그냥 억지로 엮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것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게 무게감이 생기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제가 저기 뭐냐, 저희가 회의의 어떤 원활한 걸 위해서 저기 뭐냐 건의를 좀 드리자면 방금 그런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작가만의 고유에 대한 창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은 그냥 점수로 반영하시고 거기에 이제 토를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시간이 지금 저희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내용들은 점수에 반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작품을 논의하자는 자리가 아니고 심의하는 자리니까요. 네.
- 심의라는 것이 일종의 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그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이것이 ‘이 결정된 사안대로 가도 좋을까.’ 하는 최종 체크, 점검하는 게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심의위원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모든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겠죠. 예, 그래서 심의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전부 다 100%, 200% 저는 존중합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면 채점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채점 중 )

**사회자** 심사 중에 잠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점표에 보시면 점수하고 밑에 의견 쓰시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점 이상이더라도 어떤 조건을 부여하거나 권고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가 명시를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최종 채점이 끝나고 전체 작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이냐 아니면 부결이냐 가부 결정이 난 이후에 이제 조건부나 명시 또 아니, 조건부나 권고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거기다가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싶다.’ 아니면 뭐 ‘권고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부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채점 중 )

### 3. 서구 원당동 검단지구 C12-4-1블럭

#### 3) <피노키오의 항해>

#### 4) <진실된 내가 거짓된 내게>

**위원장** 예, 다음으로 3번과 4번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피노키오의 항해>와 4번 <진실된 내가 거짓된 내게> 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3번과 4번은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외부에 있는 작품 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부조로 있는 작품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 해당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하고 작가만의 개성이나 참신성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작품성이 있게 봤고요. 다만, 지금 외부의 지금 아래쪽에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칫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저기에 부딪히거나 그다음에 이제 잘못... 또 왼쪽에 꺾이는 부분이 되게 날카로워서 또 손이 베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밑에 부분에 그 돌로 얇게 돼 있는 거 말고 요즘에 접근성을 좀 못하게 하려고 그 앞에 철로 이렇게 좀 발을 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외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럼 저기에다가 가드를 사용하면 아, 작품은 보기 그럴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작품 앞에 가드 세우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앞에 말씀하신 ○○○ 선생님 조각... 저렇게 큰 작품들은 손을 베이지 않아요. 스테인으로 마감할 때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거든요, 조각가들이. 그리고 이거는 참 굉장히 우스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접시 물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우습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저도 조각가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다보면 ‘뭐 이렇게 위험하다, 아이들이 넘어진다.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길거리 가다가도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너무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게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 말씀대로 좌대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부딪히지만 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공공예술작품이라는 거죠. 공공성이 있는 얘기는 안전에 대해서는 일말에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 안 좋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도 저기 뭐냐, 다 미대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수많은 사례와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봤을 때 오늘도 저기 뭐냐 파라다이스 시티, 그쪽 가서 봤을 때 이렇게 그 뭐냐 철로 된 얇은 걸로 이렇게 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게 굉장히 그게 시각적으로 눈에 거슬릴 정도가 되면 안 되겠고 또 방법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드린 거고 아까 높이는 방법이 있을 테고 유리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쪽에 이제 설치하는 작가나 건축주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걸 조치하도록 하는 게 나중에라도 문제에 대한 어떤 안전은 일말의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는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약간 뽀족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한다든가 그 밑에다가 가드를 한다든가 하면은 작품이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게 작품 너무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저기를 좀 더 둥글게 한다든가 뭐가 그런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 뽀족한 부분을 작가한테 저걸 저기 뭐냐, 덜 뽀족하게 하거나 저걸 하라고 하면...

○○○ 더 이렇게 약간 더 둥그렇게 해서 이 뽀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한다든지

○○○ 그러니까 작가의 생각을 저는 방해를 하면서, 그 방해하지 않고 다만 뭐 이렇게 너무 날카로운 거는 그 정도일 정도지, 저거의 어떤 형태의 변형이나 이거는 작가에 대한 어떤 창작 행위를 침해할 수 있어서 그런 범주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 그냥 굳이 자세하게 저

는 예를 들었을 뿐이고 그 안전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아까 그런 어떤 문제에 그냥 그런 게, 코멘트 하는 게 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님 하실 얘기?

○○○ 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품 세울 때 안전성, 접촉에 의한 안전성이 우려가 될 때는 작품을 아예 밑에 좌대를 40cm 이상 주고, 그 위에 올려서 세우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혹은 밑에 주목을 심어서 이렇게 뺨 돌아가면서 가드를 세운다거나 그래서 저 지면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저 작품 상태로 옆에 가드를 세우면 작품이 가리고 뽕족한 끝을 뭉툰하게 하면 작품의 맛이 떨어지고 할 것 같아서 저는 밑에 좌대의 돌 부분을 한 40cm 정도를 높이고 그 위에 작품을 얹지는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권고를 하실 경우에는 작가 선생님들이 이제 실행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반반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크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식으로 조건을 구체적으로 걸어주시는 게 작가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근데 저게 그러니까 40cm로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저는 사람, 아이들의 키나 어떤 부위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게 완전히 이렇게 훼손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2층으로, 2층에 나오는 데가 지금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게 보통 한 2층이 4m 정도 났을 때 이게 3m 50으로 했다고 그러면 사실 좌대를 높이면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되 이제 작가에게 이 뽕족한 부분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서는 이게 작게 보여서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지만 보통은 다 면을 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이렇게 날카롭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에게 역량을 맡기면서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저는 이거야말로 그냥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조건부로 나서 여기 안전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안을 한 두 개 정도를 해서 그거 조건부 심의를 다시 받게 한다거나 그런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민해서 또 약간 위치를 더 밖으로 나오게 한다는, 위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작가 쪽에서 고민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저 모서리가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담당 관계자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 아니, 저거는 뭐, 저거 아시잖아요?

○○○ 예.

○○○ 저거 그런 한 면 만들면 저게

○○○ 절대 뽀족하지 않습니다.

○○○ 예, 뽀족하지 않고 이거...

○○○ 예, 뽀족하지 않아요. 뽀족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면 큰일 나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만들면.

○○○ 관계자 분이 오셨는데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자 어쨌든 저기 작가분인지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분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여기 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기우 같습니다. 이거 작가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또 지금 그림으로 보기에 매우 날카로워 보이나 실제적으로 제작됐을 때 그 면을 갖다가 약간 굴려주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물론 걱정하고 뛰어 들어가면 다치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 그리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게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지, 정면 사진을 보면 약간 이렇게 굴러져 있어요, 윗부분이. 이게 뽕족하게 딱 된 게 아니라 윗부분이 살짝 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찌르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 네, 네.

○○○ 그러니까 저게 공공장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날카로워서 무슨 흉기처럼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아이들이라도 장난하다가 밀었는데 거기에 머리가 부딪히거나, 몸이 부딪혀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쪽에다가 의원님들이 고민해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이 사안은 채점 결과를 보고 이게 심의에서 부결되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고 승인되면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 네.

사회자 3번과 4번 같이 채점하시는 겁니다.

( 채점 중 )

#### 4. 송도동 205번지 외 1필지

##### 5) <생성소멸>

위원장 네, 다음 부분, <생성소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5번 작품 <생성소멸>은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이 분은 심의이력 보니까 뭐 대단하시네요. 거의 두 페이지를.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 지금 건물 배치도에 보면 작품 설치 위치 바로 옆에 조경이 있거든요. 되게 큰 나무처럼 보이는데 뭐 투시도나 이런 데서는 다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어느 게 정확한 건지. 그리고 이 작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보면 배치 도면하고 그다음에 투시도 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을 조금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보통은 전체 건물 탑 뷰로 전체 공간의 구조나 남은 공간이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게 파악이 한 정적이어서 좀 아쉽고요. 가령 건물의 다른 면에 공간이 있는지 이런 파악이 안 되는... 아, 여기. 아, 거기 있구나. 저는 이거 작품의 어떤 그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작품성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는 시도도 좀 되게 신선하게 봤고요. 다만 작가의 어떤 이력이나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크기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가격이 좀 비싼 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들어가시죠.

( 채점 중 )

## 5. 송도동 94-3번지

6) <볼라피스/타임머신>

7) <볼라피스의 시간여행>

위원장 다음 6번과 7번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라피스/타임머신>과 7번 <볼라피스의 시간 여행>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6번과 7번 작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시청각 자료 재생 )

○○○

네, 토론... 이 작품에 대한 토론,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만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스토리 즉, 서사를 담아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거는 저는 신선하게 봤고요. 다만, 지금 내부에 LED모션 그래픽을 적용한 미디어 아트 월 같은 경우에 이 작가의 어떤 전문성이 이런 어떤 그 철을 다루는 조각 작품 쪽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 지금 LED 안에 들어가 있는 3D로 모션그래픽 한 거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저 조각 작품만 보면 더 많은 상상할 수 있는 서사가 들어가서 저는 관찮게 봤는데 지금 이 LED작품이 아까 영상을 보는 순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연계한 게, 연계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좋으나 실제 미디어 아트 월에 들어가는 이런 영상의 작품성은 조금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도 미디어 아트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미디어 아트는 충분히 이렇게 같이 해도 요즘에는 기술들이 너무 좋아서 USB 하나만 꽂으면 이렇게 바꾸니까. 그리고 또 뭐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 영상이 1년 내내, 365일 돌아가겠어요? 저희도 보면 일주일 전시할 때 이렇게 USB를 몇 개씩 바꿔가면서 전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이렇게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영상을 바꿔서 트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설명이 있어요.

○○○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그 먼저 가심의 먼저 했을 때 그 바꾸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바꾼다고 이걸.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 사전심의 거기 용지에 돼 있었어요? 사전심의?

○○○ 예, 예. 저, 저... 예.

○○○ 예. 여기 1년에 2회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 예.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준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 근데... 그런데 그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안인데 구체적으로 과연 작가는 이 업데이트에 ‘이거 다음에는 어떤 스토리와 어떤 내용으로 보여줄 건데?’ 라는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작가에게 구체적으로 업데이트,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 조건부로 제시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네.

○○○ 저는 야외에 있는 조각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일반인들한테 물론 공공 미술이기는 하지만 너무 노출이 돼 있어서요, 작품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안전도 그렇고 작품의 안전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 밑에 또 아까처럼 어떤 약간 높이를 주는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치가 물론 작가가 건축주 측과 모든 협의 하에 저 작품과 저 장소가 나왔겠지만 부득이 저기에 놔야만 한다면 작품을 저렇게 지면에 그냥 놓는 것보다는, 저 작품이 굉장히 형태가 단순한 게 아니라 나름 많은 디테일을 갖고 있는 형태라서, 조명도 나왔고요. 그 밑에 뭔가 한 단이라도 좀 해서 이렇게 독보적으로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스듬히 있는 이 원에 이

렇게 뚫려 있는 곳이 사실 어른들은 상관없이 없는데 애들은 저런 공간을 보면 꼭 타러가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LED가 이렇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밑 부분에도 LED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걸 높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을 두면은 사람들이 단이라는 거는 ‘올라가지 못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지 않아도 낮게라도 단을 갖다가 적재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작가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이 속에 이제 LED가 들어가는 데 LED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LED가 움직이는 건지 그런 어떤 조명들, 지금 LED를 봤을 때는 색깔이 변하는 그런 변환 LED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명 계획도 같은 게 조금 첨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근데 LED 같은 경우에는 LED를 쓰면 원래 이렇게 변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한 색깔로만 나왔는데 요즘 자주 변해서 그거는 너무 이렇게 ○○ 이용해서 디자인하시는 ○○○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거를 좀 내기가, 서류상으로, 서류를 만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 LED는 5가지, 6가지만 이렇게 색깔을...

○○○ 그냥 색깔이 계속 변하는데 이제

○○○ 네, 이렇게 계속 변해가지고.

○○○ 색이라는 게 이제 그냥 막 변하는 게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표시가 됐으면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뭐,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제 좀 그런 의도를 조금 더 내비쳐주면 혹시라도 이제 단에 대한, 좌대에 대한 것이 합의 하에 권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건부를 건다든가 했을 때 이왕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조명 계획도 같은 거를 조금 첨부하면은 훨씬 더 앞으로도 작업을 하실 때도 좋고. 자, 그래서 이런 작업 자체는 되게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웠다

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네, 그럼 채점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네.

○○○ 네, 그리고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을 조건이나 권고나 네, 그렇게 권장할 수 있으니까, 네.

○○○ 방금 작품 나중에 또 논의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시에서도 요청해야 될 게 방금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닥에 설치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 계획이 없어서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밀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거는 반드시 조건부를 걸어서 어떻게 설치를 해서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어떤 지금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 14페이지에...

○○○ 구조 시공도가 있는데?

○○○ 구조 시공도가 있고요, 일단.

○○○ 아, 있나요?

○○○ 예, 예.

○○○ 어디에, 어, 그...

○○○ 5-3.

○○○ 심의도서

○○○ 심의도서에 있나요?

○○○ 네.

○○○ 도서에 있습니다.

○○○ 아, 도서에?

○○○ 예.

○○○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이게 바닥이니까 작품 설명판을 갖다가 이렇게 높일 게 아니라 바닥에다 붙여버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설명판이 걸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좀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나중에 통과가 되면 설명판에 대해서 조금 수정하는 권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네.

( 채점 중 )

## 6.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 일원

### 8) <For the Clear World>

위원장 네, 다음 8번. <For the Clear World>에 대해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8번 작품 <For the Clear World>는 ... 본 작품은 위치 변경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미술 작품보다는 위치 변경이기 때문에 위치 변경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데 시에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사회자 예.

○○○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저희 심의위원들한테 작품에 대한 작품성을 심의를 하는데 이미 이 작품이랑 다음 작품들은 이미 심의가 끝났잖아요?

사회자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위치 변경 사항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관계자분들이?

사회자 저희도 보면 이제 위치 변경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질의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치 변경도 어차피 예술 작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 아,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사회자 예, 저희가 부득이 위치 변경 사항도 위원회 심의를 지금 상정하고 있  
습니다.

○○○ 아

○○○ 이게 타 시도의 예도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공공 작품이다 보니까 그  
작품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있냐, 없  
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 근처  
나 아니면 너무 한 구석에 이렇게 귀퉁이에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귀퉁이에 이렇게 작품 위치를 넣어서 작품이 잘 있는지, 없는지도 모  
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 심의위원들께서 가  
장 최적의 장소를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저는 이 광장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변경하는 게.

○○○ 네, 저도.

○○○ 여기 채점표에는 어떻게 표기를...

서 기 가, 부만 일단, 일단.

○○○ 가, 부만 하면 될까요?

서 기 채점표에. 네, 네.

사회자 그렇게.

○○○ 네.

○○○ 이미 가결된 거라서.

○○○ 적합, 부적합.

사회자 예, 적합, 부적합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네, 네.

○○○ 아, 네, 네.

( 채점 중 )

## 7. 서구 백석동 170-3번지 일원

### 9) <설레임-마음을 그리다>

### 10) <시간, 공간-여행>

위원장      예, 다음 9번, 10번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설레임-마음을 그리다>와 10번 <시간, 공간-여행>에 대해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아, 9번, 10번 작품은 ... 이 두 작품에 대해서도 적합, 부적합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채점 중 )

○○○      이게 이제 장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사회자      아, 그거는 아닙니다.

○○○      아, 그래요?

사회자      일단은 조건부로 했으면 조건부 이행이 돼서 이미 이제 승인이 난 부분인데 이거 건축주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재심의한 상황입니다.

○○○      아, 그래요? 저번 위원회에서 ‘이거는 장소가 안 좋으니까 옮겨라.’가 아니라?

사회자      예. 그렇게 됐으면 조건부가 나왔을 텐데 조건부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안에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 그렇죠.

사회자 예, 이거는 이제 조건부로 승인 난 게 아니고 원안가결 된 부분을 건축하는 부분 쪽에서 신청자들이 이제 변경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 이제 건축주 쪽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사회자 예.

○○○ 근데 만약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까 그런 어떤 재활용하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아닌 장소라면 저희가 조건부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자 네, 심의위에서 의결되면 조건부로도 위치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 채점 중 )

## 8. 미추홀구 용현동 624-48번지

### 11) <생명+중첩>

위원장 11번부터는 재심의 작품입니다. <생명+중첩>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자 예, 11번 <생명+중첩> 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네.

○○○ 변경 전 하고, 변경 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변경 전에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변경 후가 훨씬 나은 듯합니다.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위원들 네.

( 채점 중 )

## 9. 송도동 396-11번지

12) <The cloud>

13) <Connected>

위원장 네. 다음 12번, 13번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더 클라우드(The cloud)>와 13번 <콘넥티드(Connected)>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2번과 13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예, 두 작품 모두 다 참신함과 조형성이나 작품성이 있는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 1번 작품의 위치가 지금 단지 제일 외각에 제일 붙어서 위치하고 있는데 보행자들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위치고 밖에 이동하는 차량이 이렇게 끼고 돌면서 감상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주민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그러네요. 1번 작품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어서 주민들보다는 차량이 가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이 볼까, 물론 횡단보도 넘어가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원래 지금 2차 가결 작품 설치 위치 2번하고 3번 그 위치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1번으로 했는지... 예,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 공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위치.

서 기 이게 지금 바다인 것 같고요. 이 모서리에 놓였네요.

○○○ 아, 거기에.

○○○ 그거는 이제 ○○. 단지 같은 게 있는데 단지가 크네요, 그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 지금 그러면 2번, 가결 작품 설치 위치가 원래 위치였는데 1번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거기는 원래 작품이 다른 게 있는...

다른 거죠?

서 기 2번 작품은 이미 가결이 돼가지고 심의를 안 하는 거고 그...

○○○ 아

서 기 예전 심의 때 3개 중에 저 한 점만 가결이 되가지고 1번과 3번은.

○○○ 2번만 가결이 된 거구나.

서 기 예, 예, 맞습니다.

○○○ 위치는 좀 변경을 조금 할 수 있나요?

○○○ 조건부로.

○○○ 예, 조건부로 근데 상식적인... 아, 꼭 넘더라도 조건부에 쓸 수 있나  
요?

사회자 일단은 조건부는 그 가결된 작품 중에서 조건으로 할지, 원안으로 할  
지 결정하게 됩니다.

○○○ 예, 예.

○○○ 그럼 1번 작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이 끝에. 여기로.

○○○ 예.

( 채점 중 )

## 10. 청라동 4-19번지

### 14) <홀로서기>

### 15) <시인들의 이야기>

위원장 네, 다음 14번, 15번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홀로서기>  
15번 <시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자 예, 14번과 15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예, 그 14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형성 같은 거나 지금 위치나 이런 공공성을 봤을 때 관찮게 제안된 것 같은데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뻥한 어떤 시인들의 이야기, 이게 어떤 참신성이나 독창성이나 작품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14번 같은 경우 봤을 때, 이렇게 선의 흐름들이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뭔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억지스러운 느낌?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가방하고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책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떤 그걸 조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해도 책이 크기가 커서 불안해 보여요. 특히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더 특히 그런 것 같고 그런 비례 같은 걸 좀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네. 의견 또 없으신지요?
- 저거 같은 <시인들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면 지금 뭐 옆에 계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을 조금 줄이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비례가 안 맞으니까.
-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런 작품들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데 금방 ○○○ 선생님께서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진부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과연 저 조각은 표현의 한계가 뚜렷하거든요. 조각은 회화하고 달라서, 평면에 그리는 거하고 달라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각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2D에서 보면 디자인이나 또 다른 회화에서 보면 자기가, 작가가 그러니까 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은 한 번에 다 읽어요, 그거를. 그런데 조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생각을 한 번에 읽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보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보면 뭐 시인들 표

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조각가가.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금방 쉽게 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참, 그래서 조각이 어려운 게 바로 저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렇게 작품 제목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서정적인, 관용구가 들어간 그런 작품 제목을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작가의 의도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편리함? 불편하지 않게 제목으로 짧게, 짧게 설명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현의 방법 중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네.

○○○ 네.

( 채점 중 )

## 11.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B-1, 2 로트

16) <가든 토템(Garden Totem) A>

17) <가든 토템(Garden Totem) B>

위원장 예, 다음 16번, 17번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6번 <Garden Totem A> 그리고 <Garden Totem B>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16번과 17번은 ...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사전 심의할 때도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FRP가 최후 재료로 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조각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뤄서 알고 있는데 그 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건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이제 유리섬유를 안에다 대서 보강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저게 햇볕에 노출하고 한 15년~20년 정도 되면 삭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삭더라고요, 작품 전체가. 그래서 조각가들은 절대 바깥에, 1~2년 정도 임시 설치물들은 하는데 영구 설치물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 건축주분이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FRP가 저렇게 큰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 만약에 소품으로 나와 있으면 상관 없겠지만 저게 바깥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작품에다가 석면을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FRP는 석면을 쓰거든요, 유리섬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작품에도 저런 유리섬유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각가들이 바깥에 세우는 거는 굳이 굉장한 돈을 들이면서까지 석재나 브론즈나 철 등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FRP를 최후 재료로 쓰겠다는 것은 또 처음 봐요.

○○○ 제가 ○○에 몇 달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랑 다르게 시멘트를 쓰더라고요, 시멘트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가난해서 그렇대요. 조형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돈 많은 나라에서 저 FRP를 최후재료로 쓰는 건, 저거는 조각가가 안 그래도 저거는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시멘트는 시멘트대로의 그 물성이 있기 때문에

○○○ 아, 그럼요.

○○○ 사실 견고하고 건물도 시멘트로 지으니까.

○○○ 네, 네, 네.

- 그렇긴 한데 저희 막 그런 사람들은 FRP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 네.
- 근데 이 가격을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개수가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지금 사실 약간 제 눈에는 산만해 보이거든요. 그냥 개수를 줄이고라도 재료를 갖다가 제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이런 조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이게 유행인 것 같아요.
- 어,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 예, 다른 데에서도 이런 식의 이렇게 조립해 갖고 여러 기둥처럼 해서 늘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아주 ‘아, 이건 진짜 괜찮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조화도 좀 안 맞고 저렇게 그 여기 봤을 때 맨 위에 올라가는 사각형이 꽃혀 있는 것도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라든가 그런 거는 안정성이 있는데 저렇게 꽃아서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 그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FRP라든지 어떤 오브제의 어떤 걸 사용하는 거는 작가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FRP 쓰는 작가가 있고요. 특히나 저기 ○○○ 같은 경우에는 ○○○에 거기 그 항구 그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예도 있었고. 물론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서 배에 이제 다시 어부가 발견해서 다시 갖다 놓은 예도 있고 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에 가면은 실내에도 있습니다, FRP로 만든 게 있는데. 아니…
- 아,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저 조각가들이 FRP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조형물로써 안 쓴다는 거예요.
- 아, 예. 그러니까…
- 왜냐하면 가격도 되게 싸거든요. 가격도, 가격이 싸요.

- 아니, 그러니까...
- 문제는 알겠지만. 근데 조각가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 아니, 근데 싸면서 효과를 좋게 해서 하면 되는데
- 아이, 그렇죠. 그래서 저게 실내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외선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혹시 자외선에 대해 선생님, 연구하신 적 있으세요?
- 아니, 그렇게 치면 나머지 다 그 도장... 최근에 이렇게 컬러 들어가는 것들은 다 문제가 되고요.
-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질은 어떤 소재나 이런 문제보다는 이 작가의 작품관을 보면 이분은 작품 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그때마다 다 주제나, 소재나 다 다르고 이렇게 쪽 작가 이력을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저는 일종의 이런 어떤 공공에 대한 이런 작품을 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작가로서의 진정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작품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그래서 또 보면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보고 이렇게 혹시 사전검토 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또 마지막 작품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렇게 옥련동에 있는 작품을 보더라도 너무 형태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잘못하면 한 작가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작가인가?’ 이렇게 감정이.
-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의 또 문제는 아까 그 약간 ○○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 작가의 기준에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렇게 페그런 플라스틱 오브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비슷한 것도 있고. 또 여러 지금 최근에 그냥 트렌디 한 것만 그냥 이제 반영한 작품이어서 작가로서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래서 저게 뭐, 한 1~2년 설치 할 거면 문제가 없는데 재료로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 선생님도 보면 그런 큰 거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한 1~2년 설치하고 다시 하고 그러거든요.
- FRP는 야외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개수를 좀 줄이고 가격 대비 했을 때, 개수를 줄이고 아니면 재료를 좀 바꾸면서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여기 조각 전공자인가요?
- 조각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 아니에요?
- 모르겠는데요.
- 그 디자인 전공자네요.
- 그렇죠? 음.
- 네.
- 근데 사실 뭐, 무슨 전공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전공을 하지 않...
- 네, 전공이 중요한 건 아니죠.
- 대학 안 나와도 하는데 본질은 작품성이, 작품이 이렇게 독창적이거나 좋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채점 중 )

## 12.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 1-1BL

18) <서쪽에서 부는 바람>

19) <높이 높이 날아라>

위원장 18번, 19번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18번 <서쪽에서 부는 바람> 19번 <높이 높이 날아라>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18번과 19번은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네.

○○○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 18번은 조금 더 괜찮은데 19번은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 하게 많이 사용하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형태나 이런 약간 귀엽고 그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좀 블링블링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화합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작품이어서 이런 어떤 해당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독창성이나 예술성이 조금 아쉬운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나면 이 해당 작가의 다른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어떤 독창적인 예술성이 있는 작품인데 마치 작가가 여기에 이런 어떤 공공미술 그 건축물 예술 작품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어서 그런지 너무 여기에 입맛에 맞춘 듯한 느낌이어서 해당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조금 더 기존에 좋은 어떤 역량이나 레퍼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만큼은 좀 아쉽게도 많이 좀 미흡하게 제안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 기 작가가 틀리...

○○○ 아, 그런가요? 아, 다른 작가... 다른 작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18번은 좀 낫다고 보는데, 19번 이것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작가의 시그니처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떨어뜨려요. 그래서 조각가가 정말 어려울 때...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화실을 떠나서, 작업실을 떠나서 바깥에 세워놓을 때 내 작품하고 달라야 되느냐 아니면 작가 안에 있는 작품이 덩치를 키워서 바깥으로 가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조각가들은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싫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작업실 내의 작품은 되게 좋은 작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나가서 그 작품은 가져오는데 꼭 조형물부터 우선이 돼야겠다. 따라서 다른 걸로 바꾸면 또 안의 작품은 그런데 뭐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만연한데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과연 좋은 조형들로써의 또 나올 수 있는지를 참. 그래서 금방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19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미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형을 완성하는 그런 시도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처음, 먼저 시작한 작가가 프랑스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작가가 사람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삼시간에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퍼져서, 세계는 하나니까. 얼마 상간으로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이렇게 한번 조형물로서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천에 있는 건데 이렇게 공항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휴게소에 있거든요? 휴게소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곱 작품, 삼각형으로 된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한번 누가 법의 결정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에서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삼각형은 조형하는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누구의 방법도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예술성이 결여됐다, 안 됐다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람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뭐 하는데 (한숨)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웃음)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이걸 전부 다 작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좀 좋게 다 했으면 좋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

이 작가가 지금 작품을 보니까 거의 다 이런 작품을 해왔네.

- 어, 그렇죠. 네, 네.
-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유행처럼 번지긴 했지만 이걸 고집하는 작가인데, 그걸 다르게 하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는 뭐 저렇게 하는 게 아마 작가의 시그니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 이 삼각형이 원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릴 때 땅따먹기 원리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수학자 그 들로네라는 사람이 ‘들로네 삼각분할’이라는 그걸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삼각형과 사실 다각형은, 우크라이나 수학자인데, 그분은. 그래서 조지 보로노이라고 보로노이 다각형, 다이어그램이라 하고 그 삼각형과 다각형을 누구나 다 쓰잖아요, 사실은. 저도 쓰고. 그래서 그런 저는 작가만의 어떤 개성이고, 자기만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리고 18번 봤을 때는 사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사실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작품하고 이렇게 콘셉트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살짝 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변경 후가 서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런 걸 찾아낸다는 게.

( 채점 중 )

### 13. 연수구 옥련동 118-44번지 일원

#### 20) <꿈꾸는 정원>

위원장 네, 마지막 작품입니다. <꿈꾸는 정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예, 20번 <꿈꾸는 정원>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작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작품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보면. 작업실 안의 작품은. 근데 조형물이 이렇게... 그래서 이 작품이랑 아까 죄송하지만 한 번 같이 띄워보실래요? 그 전전 작품 하고.
- 네, 이거랑.
- 예, 이 작품이랑.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은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그러면?
- 그러니까 저쪽은 기하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후의 건, 기하학적인 요소와 그것을 좀 가미를 시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연적인 어떤 그렇게 들답 같은, 쌓아 올리는 그런 거의 느낌과 느낌을 약간 주산...
- 예,
-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한다, 작품이. 유행한다는 거는 작가들도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거기 유행에 동참하는 것도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참 오히려 그럴 때 발 담그는 거라서 그런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 그 아까 제가 18번, 19번 작가가 그 같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작가의 작품 레퍼런스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공공미술 작품의, 건축미술 작품의 입맛에 맞췄다라는 게 제가 지금 20번 작품하고 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번 이 작가가 사실은 지금 다른 도서를 보시면 되게 느낌이 좋은데 독창성도 있고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까 방금 비교하셨듯이 굉장히 입맛에 맞춘 너무 타협한 그런... 사실은 제가 그 어떤 미술사나 예술사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떤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유행에 따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해서 응용한

그런 작가들도 수많이 많이 있어 왔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전혀 어떻게,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개념까지도, 심지어는. 심지어는 뒤상 같은 경우에는 회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브제를 2개 레디메이드로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만들거나, 그리거나 심지어는 본인이 사인도 하지 않았던 잘못된 미술 표현이죠. ‘샘’이라는. 파운틴(Fountain)인데, 사실은 분수인데. 일본 교과서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샘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 소변기 작품에서 본인이 한 거는 ‘아, 이거는 변기가 아니고 파운틴(Fountain)이야. 즉, 분수야.’ 이런 어떠한 개념만 구현했을 뿐이거든요. 저는 가장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처럼 이 작품은 너무나 역량이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이 작품... 타협했다 그러니까 대중의 입맛에도 맞았다라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작업은, 작업은 좋네요.

○○○      작업실 작업은 좋아요.

○○○      예, 개인 작업은 예.

○○○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제 작업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하고 싶지만 작업이 조형물화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중을 갖다가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갖다가 막 강요를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작가로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이 작품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같이 이렇게 쌓여, 쌓은... 맞지만 이 작품은 이렇게 약간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메스에다가 이렇게 기하학적인 것이 올라와서 또 위에는 스탠드처럼 빛을 갖다가 위에서,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래도 생각은 좀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위치가 이제 또 오히려 좀 너무 이렇게 방향을 갖다 좀 바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하면 이제... 아, 이 방향이 지금 그 어린이 놀이터를 갖다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가 거의 끝 지점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그... 약간 도로 쪽으로, 아까 뭐지? 산책로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면 어떤가. 약간 사선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작업을 하는데 자기 작품을 갖다가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보다는 전작 거의 어떤 그런 그 조형보다는 지금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렇게 보입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저게 자기가 작품이, 조형물이, 조형물하고 같이 매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작가가.

○○○ 예, 맞아요.

○○○ 나는 조형물로 이게 내 작품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 맞아요.

○○○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자기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나.

○○○ 그렇죠. 예, 예.

○○○ 그거 좀 모던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 예, 오히려 지난번... 아까 몇 번이더라.

○○○ 처음 겁니다.

○○○ 그거는 좀 어거지스러운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자연적인 어떤 그런 유산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색감 같은 것도 또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고요. 작가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 채점 중 )

##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집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가결 작품은 총 18점이고요. 부결 작품은 16번, 17번 2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결 작품 중에서 심의위원 여러분들 그 조건이나 건의사항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을 지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고 어떤 것은 권고가 될 것인가. 3번 작품 <피노키오의 항해>를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의견이 두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3번 작품을 한번 띄어주시죠.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안전성을 고려해서 좌대 높이를 좀 줄 것.’ 제안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그 달 모양의 꺾이는 면이 날카로운 안전을 생각해서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좌대를 이제 아까 ○○○ 선생님 말씀이 “좌대를 하면 천정이 낮아서 안 되겠다.”

○○○        예, 예.

○○○        그러면...

○○○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위치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작품이 들어갈 위치가 또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건물에서.

○○○        네.

○○○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여기 조금, 조금 어...

달 모양의 앞부분, 내려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        부드럽게.

○○○        부드럽게. 응, 좀 그렇게 권고를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        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 그 작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높이가 지금 95cm라서 애들 눈에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작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 네, 네, 부드럽게.
- 작가한테 그거를 뭐, 조건부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는 이렇게 권고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 네, 네. 작가도…
- 저는 오히려 그 작품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냥 좀 더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할 거라고 하면 작가가 고민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 작가에 대한 조금 지나친 개입일 수 있어서 그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 이렇게 해서 안전이라는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요. 제시하라는 거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저희는 위원회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를 언급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조건부로 가자는 거네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건부를 하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한 건 또 심의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권고만 해도, 보통 본인 작품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게 할 수가 없어요.
- 근데 사실은 권고하면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고는 이게 어떤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권고가 좋다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다섯 분, 네. 그러면 조건부는 더 이상

뭐 거수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러면 권고로 하는 것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서 기 권고 내용을 저희가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 네.

사회자 그러니까 권고를 하게 되면 권고나 조건부에도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정확한 내용을 좀

○○○ 그 문구를 지금 작성해야 되나요?

사회자 네.

○○○ 네. 그러면 아까 포괄적, 포괄적인 안전을 고려할 것, 그 말이었나요?

○○○ 이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굴러지기는 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옆에서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 보이지만 여기를 이렇게 굴리기는 굴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굴려보는 그런 디자인으로. 그 위쪽은 그냥 조금 뾰족해도 되지만 밑에 부분을 약간 더 굴려서 이렇게 하면은 옆모양도 해치지 않고 그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조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굳이 말 안 해도

○○○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기 그러면 이렇게만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 예.

위원장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생성소멸>을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품 가격이 타당한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작품가에 비해서 작품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었나요?

○○○ 다른 작품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 고가라는 문제는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준점을 좀 찾고 싶어서 지금 의견을 올렸습시다. 사실 뭐 작품 가격을 저희가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 예.  
○○○ 네, 그래도 기준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 저기 ‘작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거는 너무…  
○○○ 힘들다.

( 일동 웃음 )

○○○ 예전에 그 법정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 네, 네.  
○○○ 건축가들이 과연 이걸 작품 가격을 계량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온… 나중에는 그걸 못 하게 됐죠. 무리한 ○○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작품 가격은 우리가 볼… 뭐, 한 근 얼마, 고기 한 근 얼마 이렇게 하듯이 작품은 뭐 1m, 얼마,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작품 가격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 이게 고무줄 중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건을 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한번 거수로 결정할까요? 다수결의 폭력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의견이 일치 안 되니까, 네. ○○○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조각적으로, 사실 가격 책정하는 거 사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거를 보긴 하지만 상상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 아, 그렇죠.

-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여쭙 봤던 거고. 사실 작품 가격을 저희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각에 있어서 가격 책정 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고 싶었어요.
- 네, 사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하면 심 의 조항에도 사실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기가 사 실은 쉽지 않은 거죠,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그래도 그 무시는 못하는 거니까. 그 가격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어떤 무게나 아까 중당 가격처럼 그 관점보다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 작가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를 계속 만들 어 왔느냐, 그 작가가 마지막으로 팔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대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 확할 것 같아요.
- 예.
- 그러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작품을 좀 키워라.’ 할 수는 있습니다, 조건으로.
- 그렇죠, 그게 훨씬 낫죠. 저게 가격에 대해서 작으니까.
- 아니, 저는 그것 또한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더 키워라? 그것 또한 너무 작가가 생각하는 크기나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키워라’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 적인 이제 개입일 것 같은데, 간섭인 것 같은데.
-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중당 가격서를 없애고 대신에 받는 게 있잖아요. 작품가 산출 내역서라는 게 있잖아 요. 작가 몇 프로 가져가고, 중개업소 몇 프로 가져가고, 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디자인 비용이니, 재료비니, 운반비니, 조명비니, 이런 게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 그럼 가격 산출 내역서를 받을까요?

○○○ 거기 이미 들어 있어요.

○○○ 네. 그러면 논의를 그냥 이걸로 그쳐도 되겠네요.

○○○ 괜찮습니까?

○○○ 네, 네

**위원장**

그다음 작품 <볼라피스/타임머신> 조건을 달면 좋겠다는 위원이 계셨고, 또 권고 의견도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좌대를 조금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음... 같은 의견입니다. ‘작품과 지면 사이, 작품의 낮은 좌대를 만들어서 작품을 그 좌대에 올리면 좋겠다.’ 두 분 선생님이 같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안전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 그리고 조건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건 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 그 저는 아까 제가 저게 어떻게 설치되는 거에 대한 거를 못 봤잖아요. 나중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세히 보니까 나름 바닥에 어떻게 설치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떻게 바닥에 하는 것 자체가 그 작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

니까 마치 그런 거죠. 밑에 좌대를 놓게 되면 저렇게 햇빛을 받아서 그림자가 졌을 때 저 바닥에 저런 것도 고민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이대로 가고요. 다만, 아까 저런 게, 손 끼임이라든지 아까 날카로운 어떤 마감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거를 보완할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저도 좌대가 있는 거는 조금 더 불편해 보이고, 저게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속에 마감 좀 보고 그리고 저 위치, 그냥 저대로 놓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좌대에 올라가면 좌대 자체도 저는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아,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하늘에서 그냥 툭 떨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를 아마 작가가 연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안내판의 위치는 그러니까 보행자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 위에 이렇게 낮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판의 위치는 보행자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넣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구체적으로 ‘좌대를 만들어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작가가 안정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만 하면 어떨까요? 권고사항으로.

○○○ 그거랑 그 명패가, 명패가 사실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냥 명패는 바닥에다 그냥 붙이는 걸로, 그거는 좀 권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 명패?

○○○ 네, 명패가 약간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 있는데

○○○ 아, 아

○○○ 지금 이게 지금 툭 떨어져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굳이 그게 오

히려 그게 이제 도로 위에다

○○○ 명패가 바닥에 플랫폼하게 딱 붙게?

○○○ 예, 예, 예.

○○○ 수평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 예, 수평, 바닥에 그냥 딱 펴고 붙이는 걸로 해서.

○○○ 네, 네. ○○○ 박사님 의견, 이 의견 괜찮으세요?

○○○ 네.

서 기 이거 권고입니까? 권고도…

○○○ 네. ‘그 명패를 바닥에 붙일 것.’ ‘작품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명패를 바닥에 붙일 것.’

서 기 네.

위원장 지금 이것은? 네. 12번 <더 클라우드(The cloud)>

서기 2 12번이 위치 변경 의견을 세 분이 주셨어요.

○○○ 12번 클라우드가 위치 변경 작업이었던가요?

서기 2 네, 네.

사회자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 아, 아, 네, 네, 네.

사회자 바닷가 쪽에 있던 거.

○○○ 위치 변경. 저거를 일단은 그, 이 부지 안쪽으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구석에 있어서 안 보이니까. 자동차로 지나가면서만 보인다면서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 저 위치가 주민들이나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좀 편안하거나 또는 포인트처럼 거기 서서 조망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네, 저도 그 정도 위치 고민해서 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 그러면 조건으로 위치를 변경하는데, 부득이 거기밖에는, 이 장소밖에는 설치할 수 없다, 현장 사정상 그런, 저희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해라,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붙일까요?

○○○ 네.

서 기 조건부입니까, 그러면?

사회자 그 정도에 위치를 더 옮기는

○○○ 네, 그러니까 ‘위치를 옮길 것.’

○○○ 좀 더 시민들이 더 그…

서 기 주민들이

○○○ 예, 더 많이

○○○ 더 많이, 예.

서 기 더 많이

○○○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쪽에서.

○○○ 음, 향유할 수 있도록 예.

○○○ 접근이

○○○ ‘설치 위치를 변경.’

○○○ 예, 예.

○○○ 예. ‘주민들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작품 설치 위치를 변경.’

○○○ 네. ‘작품 설치 위치를 변경.’

○○○ 네. 네, 그리고 단서를 달아서 ‘현장사정이, 현장사정이 불가피하여 그 위치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 됐습니까?

사회자 네.

위원장 네, 그럼 마지막입니다. 20번 <꿈꾸는 정원>. 권고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20번입니다. 색감이 좀 너무… 뭐죠, 원색들이 많아서 이걸 좀 자연스러운 색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채도를 좀 낮춘다고 그럴까요? 예. 또 약간 중간 채도로 살짝 색채의 담도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하여 계획 변경을 건의함.’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 그냥 저는… 제 견해인 것 같은데요, 네. 저 작품을 처음에 봤을 때 기원탑이라는 것도 좋고, 사실 의미가 좋아서 참 좋았는데 색감이 너무 좀… 아, 네. 좀 너무 이질적이라 색감을 조금만 바꿔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 네.

○○○ 저는 아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 색깔마저도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거든요.

○○○ 네.

○○○ 불편하던, 안 맞던 다 작가의 의도라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나중에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작가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네, 네,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 오방색도 굉장히 화려한 색깔이니까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를 그냥 하지 않는 걸로 하는 거로

○○○ 네, 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심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건의 심의 안건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8, 19, 20번 가결됐습니다. 12번 심의 안건은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6번은 권고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1번,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5번, 18번, 19번, 20번 작품. 이상 15 작품은 원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결 작품은 2건. 16번, 17번 작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의결합니다.

( 의사봉 3타 )

- 녹 취 끝 -